공익재단법인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2021년4월호
vol. 181

국제플라자 뉴스

공익재단법인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880-0805 宮崎市橘通東4-8-1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1층
Tel:0985-32-8457 Fax:0985-32-8512 Homepage:https//:www.mif.or.jp E-mail:miyainfo@mif.or.jp
개관시간:오전10시~오후7시 (화요일~토요일) 휴관일:일·월·공휴일, 연말연시 (12월29일~1월3일)

미야자키현 국제플라자 휴관일 안내

2021년 4월 29일(목)공휴일로 인해 폐관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강좌 초급1·초급2 ※사전 신청 필요

현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어 초급강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일 시** : 6월1일(화)~9월2일(목) 총 25회
매주 화요일・목요일
초급1 13:30~15:20
초급2 10:10~12:00

◇**장 소** :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 1층

◇**대 상** : 초급1 처음 일본어를 배우는 분
초급2 히라가나, 가타카나 읽을 수 있는 분

◇**수강료** : 무료

◇**교과서비** : ￥2,376

◇**신청・문의** : (공재)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온라인 일본어 강좌 초급1·2· 3 ※사전 신청 필요

지역에서 생활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일본어를 배워봅시다! 미야자키현에 거주하며 Zoom을 사용 가능한 분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 https://forms.gle/2D5t7xwz64pYVK6S7

◇**문의** : (공재)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코스①<초급1>:처음 일본어를 배우는 분
◇**일 시** : 4월15일(목)~7월22일(목) 매주 월요일・목요일
10:00~11:50 오리엔테이션 1회, 수업 25회
◇**수강료** : 무료 ※교재 비용은 별도입니다(￥2,640).

코스②<초급2>:히라가나, 가타카나 읽을 수 있는 분
◇**일 시** : 4월14일(수)~7월14일(수) 매주 수요일・금요일
10:00~11:50 오리엔테이션 1회, 수업 25회
◇**수강료** : 무료 ※교재 비용은 별도입니다(￥2,640).

코스③<초급2>:히라가나, 가타카나 읽을 수 있는 분
◇**일 시** : 4월15일(목)~7월20일(화) 매주 화요일・목요일
18:30~20:20 오리엔테이션 1회, 수업 25회
◇**수강료** : 무료 ※교재 비용은 별도입니다(￥2,640).

코스④<초급3>:간단한 회화가 가능한 분
◇**일 시** : 4월13일(화)~8월20일(금)
매주 화요일・금요일 10:00~11:50
오리엔테이션 1회, 수업 35회
◇**수강료** : 무료 ※교재 비용은 별도입니다(￥4,400).

(공재)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의 사업소개

2021년도 (공재) 미야자키현 국제 교류협회에서는 다음의 강좌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 상세정보는 개최 시기가 다가오면 홈페이지 (https://www.mif.or.jp) 또는 플라자 뉴스에서 안내드립니다. 당 협회 Facebook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 좌】
・일본어 강좌・초급1・2(전기・후기)
・온라인 일본어 강좌 초급1・2・3
・지역일본어교실 ・일본어 연습회
・방재 세미나
・외국인 재해 서포트 자원봉사자 양성 강좌
・챗트(영어・중국어・한국어)
・워킹 홀리데이 설명회
・일본 전통 문화 체험 강좌
・국제이해강좌
・일본어 학습 지원자 대상 강좌
・외국인 주민 지원 강좌

【이벤트・행사】
・세계와 토모다치 미야자키 국제 페스타
・아트 페스티벌 '외국인이 본 미야자키' 작품전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

【자원봉사・강사】
・일본어 자원봉사
(일본어 자원봉사 등록・소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역 자원봉사
(교류 행사에서 통역을 하는 자원봉사입니다)
・호스트패밀리 자원봉사
(홈스테이 가정을 수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재해 서포트 자원봉사
・미야자키현 국제 플라자 카운터 자원봉사
(전기:4월~9월, 후기:10월~3월)
・다문화 공생 어드바이저 파견제도
(국제이해강좌 등에 무료로 강사를 파견합니다)

【간행물】
・사우스 윈드(연 2회 발행)
・Living in Miyazaki
(매월 마지막주 일에 미야자키 일일신문에 영어로 게재)
・플라자 뉴스(매월 발행)

◇**문의**: (공재)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일본어 연습 ※자유 참가, 무료

◇**일 시:** 10:30~11:30
[수요일] 4/7, 4/14, 4/21
[금요일] 4/9, 4/16, 4/23
◇**장 소:**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1층
◇**문 의:** (공재)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미야자키현 국제플라자 도서코너

◇**대출기간:** 2주일
◇**연 장:** 1회에 한해서 2주일 연장가능합니다.
반납일 이전에 연락해 주세요.
◇**반 납:** 화요일~토요일 10:00~19:00
※우편으로도 반납가능
(단, 우편료는 자기부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책이오니 페이지를 접거나, 낙서등을 하지말아 주세요. 파손 및 분실 시 변상하셔야 합니다.

일본의 음악문화 소개

여러분들은 시티팝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가요?
음악 장르의 하나로 70년대 후기부터 80년대의 일본의 대중음악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가사와 사운드가 '도시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 유튜브로 검색하면 전세계로부터 코멘트와 호평이 이어지고 있어 잔잔하게 유행하고 있는 음악입니다.여러분들께 추천 음악을 몇 곡 소개 드리오니 한 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Plastic Loive (타케우치 마리야)
○Stay with me-한밤중의 도어- (마츠바라 미키)
○Flyday Chinatown(야스하)
○Sparkle(야마시타 다쓰로)

미야자키 외국인 서포트 센터 사업안내

【상담】

・센터 상담원에 의한 상담・온라인 상담
・외국인을 위한 생활・법률 상담회(상시)
(변호사・행정서사가 생활에 관한 상담에 대응합니다)
・생활 상담원에 의한 외국인을 위한 생활 상담(상시)
(영어・중국어・한국어・타갈로그어・포르투갈어・베트남어 등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출장 상담회(현내 각 시정촌)

【대응 가능한 언어】

(번역기・전화통역으로 대응합니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어, 타갈로그어, 네팔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미얀마어, 몽골어, 캄보디아어,신할라어

외국인을 서포트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에도 대응합니다.

대응시간 화요일부터 토요일10:00~19:00
Tel 0985-41-5901 Fax 0985-41-5902
E-mail support@mif.or.jp
자세한 정보는 서포트 센터Facebook을 참고해주십시오.

(Website) (Facebook) (Instagram)

≪4월의 이벤트≫

이벤트·내용	개최일시	장 소	문의처
부겐 페스타	4/17(토) ~ 5/9(일)	아오시마 아열대 식물원	아오시마 아열대 식물원 0985-65-1042
미야자키 국제 스트릿 음악제	4/29 (목/공휴일)	Albright Hall, SR BOX, MRT Micc 등	미야자키 아트 센터 0985-22-3115

미소:미야자키의 소소한이야기

한국에 김씨, 이씨, 박씨가 많은 이유

국제교류원 박유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대표적인 성씨인 '김', '이', '박' 이 세 가지의 성씨만 합쳐도 한국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어째서 한국에서는 '김,이,박'의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번 4월 칼럼에서는 한국의 성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김,이,박'씨가 많아진 이유는 역사적인 배경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옛날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신분제가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성씨는 왕족과 귀족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였고, 왕족·귀족 대부분의 성씨가 '김, 이, 박'이였습니다. 서민이나 천민과 같은 낮은 신분의 사람들은 성씨는 물론이고 제대로 된 이름조차 없었지요. 그러다 1894년부터 신분제 폐지 운동이 일어나면서 모두 평등하게 신분에 관계없이 성씨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성씨를 가지게 되는 서민들은 동경하던 왕족, 귀족들과 같은 성씨를 사용하게 되면서 지금의 한국에는'김, 이, 박'의 성씨가 한국 인구의 45%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참 흥미롭죠? 하하
한국에는 '김, 이, 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성씨로 부르기보다는 한국에서는 이름으로 부르고 사람을 구별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한국인 친구가 생긴다면 성씨로 부르기보다는 이름으로 불러보시길 바랍니다!